

에너지 전환

통권 275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께 주세요

8 2022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버스
7월 6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바라는 대학생기후행동 활동가, 홈리스 활동가, 발진소 노동자 등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당진화력발전소 앞에서 선전전에 참여했습니다.



소들섬 코앞까지 철탑...주민 압박



기후정의버스 당진화력 찾아 정의로운 전환 요구



"기후위기 대응 시간 8년 남아...
정의로운 전환 이뤄야"

- ▶ 발행일 2022. 8.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여름비 한탄 / 고영민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3위
- 6 지역환경초점2
|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 8 지역환경초점3
| 당진시, 2020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합계 전국 12위
- 10 지역환경단신1
| 소들섬 코앞까지 철탑...주민 압박
- 11 지역환경단신2
| 기후정의버스 당진화력 찾아 정의로운 전환 요구
- 12 지역환경단신3
| "기후위기 대응 시간 8년 남아... 정의로운 전환 이뤄야"
- 13 전국환경초점1
| 수도물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나왔는데 문제없다고요?
- 14 전국환경초점2
| 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방출"...25cm 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 15 7월 살림살이
- 16 생활 속 환경! 머리 속 실천!
|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신고센터
- 18 석탄씨를 구해줘
| 23화. 위기의 석탄씨를 구해줘
- 20 7월 활동소식
- 22 8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여름비 한판

고영민

파루에 낫아
여름비를 본다

밭길에 하얀
뿌리 끌이 하얀
대과 같은 여름비

빛속에 들어
손목의 빛줄기를 씻어 뉘는다

대과 한 판
열무 한 판
시금치 한 판 같은

그리움 한판

그저 어림잡아 뉘어 놓은
내 손 한 뉘의
크기



고영민

- *1968년 충남 서산 출생.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 *2002년 <문학사상>으로 작품활동 시작.
- *시집 『악어』 『공손한 손』 『사슴공원에서』 『구구』 『봄의 정치』.

당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3위

당진화력 9위 · 현대제철 12위...배출량 감소
충남, 광역지자체 배출량 7년 연속 전국 1위

당진지역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2500톤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전국 826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가 전국 9위,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가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2020년 조사 당시 보다 당진발전본부는 2순위 하락했고, 당진제철소는 6순위 하락하며, 배출량 또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로 남아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최근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개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사업장의 2021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당진시는 연간 1만3760톤을 배출해 광양시 1만8043톤, 단양군 1만5173톤에 이어 시·군·구별 배출량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당진시는 2020년 배출량 1만6238톤보다 2478톤을 감축했으나, 배출량 순위는 전국 3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2020년 배출량이 1만6511톤으로 2위를 차지했던 포항시는 지난해 4981톤을 감축해 4위로 떨어졌다.

당진시의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대상 사업장은 2020년 11개 사업장에서 2021년 21개 사업장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당진발전본부와 당진제철소에서 2954톤을 감축했으나 대상 사업장이

늘고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배출량은 2478톤 감축에 그쳤다.

사업장별로 보면 당진발전본부는 지난해 6523톤을 배출해 2020년보다 612톤(8.6%)을 감축했다. 현대제철은 5378톤을 배출해 2342톤(30.3%)을 감축했다. 당진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요인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당진발전본부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발전상한제 등으로 이용률이 하락했고, 당진제철소의 경우 선택적 촉매환원법(SCR) 방지시설을 설치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전년 대비 감축량을 보면 제철·제강업이 9595톤, 발전업이 3171톤으로 큰 폭의 감축이 이뤄졌다. 하지만 시멘트제조업은 157톤, 석유화학제품은 116톤으로 배출량 감축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 배출량에서도 대형 시멘트제조업이 위치한 단양군(4위→2위), 석유화학제품업이 위치한 여수시(6위→5위)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한편 광역 시도별 배출량을 보면 충남은 2021년 배출량 3만4200톤으로 전년 대비 2493톤을 감축했으나 여전히 전국 배출량의 17.8%를 차지하며 7년 연속 1위라는 오명을 기록했다.

[출처: 당진시대]

2021년 골뚝TMS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상위 20개 사업장

순위	사업장	소재지	연간 배출량(톤)
1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시	16,121
2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포항시	10,306
3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삼척시	8,340
4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태안군	8,087
5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동해시	7,621
6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빛드림본부	하동군	7,295
7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	단양군	6,769
8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웅진군	6,690
9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	당진시	6,523
10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단양군	6,506
11	한라시멘트(주)	강릉시	6,412
12	현대제철(주)	당진시	5,378
13	아세아시멘트(주) 제천	제천시	4,768
14	한일현대시멘트(주)영월공장	영월군	4,378
15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발전본부	고성군	4,062
16	한국중부발전(주)보령발전본부	보령시	3,970
17	SK에너지(주)	울산 남구	3,829
18	현대오일뱅크(주)	서산시	3,636
19	쌍용씨앤이(주) 영월공장	영월군	2,446
20	한국동서발전(주)신호남건설추진본부	여주시	2,400

전년 대비 골뚝TMS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시군구별 순위 비교

2020년 배출량			2021년 배출량			순위 변동
순위	시군구	연간 배출량(톤)	순위	시군구	연간 배출량(톤)	
1	광양시	21,567	1	광양시	18,043	
2	포항시	16,511	2	단양군	15,173	↑ 2
3	당진시	16,238	3	당진시	13,760	
4	단양군	14,286	4	포항시	11,530	↓ 2
5	동해시	12,643	5	여주시	10,632	↑ 1
6	여주시	10,858	6	동해시	10,277	↓ 1
7	삼척시	9,845	7	삼척시	9,797	
8	울산 남구	9,094	8	울산 남구	8,658	
9	보령시	7,732	9	태안군	8,092	↑ 3
10	인천 웅진군	7,512	10	하동군	7,295	↑ 4

[성명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기후위기대응 부서 폐지가 아니라 확대·강화해야 한다.

당진시가 7월 1일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진시는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경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에 적합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해'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구시대의 성장,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번 조직개편안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기후위기대응 부서를 확대·강화하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당진시는 발전, 제철 등 탄소 다배출 산업 중심의 도시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이다. 이로 인해 2020년 언론 발표에 의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향후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1위 기초지자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정도다. 김태흠 신임 충남도지사는 취임사에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로 선포해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렇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모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을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과제이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는 국장급의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고 개발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할 정도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은 중요한 의제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대응과를 폐지하여 기후위기 업무를 환경정책과 산하 팀으로 축소하고 에너지업무를 지역경제과로 변경시킨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무지일 뿐 아니라 탄소중립정책을 강화하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대기업들의 잇달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선언,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 세계의 경제 질서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인류 공통의 과제를 위해 재편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도외시하는 양적 성장, 개발 중심의 정책은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며 지역의 미래를 위기로 몰아갈 뿐이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산업, 교통, 건축, 농축산업, 폐기물 등 모든 분야를 아울러 추진되어야 하며 화석연료에 기반한 우리

의 모든 생활양식, 생산방식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문제와 에너지는 동전의 양면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에너지팀을 지역경제과로 변경하려는 것은 과거 에너지공급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퇴행에 다름 아니다.

기업 유치, 경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던 과거의 사고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 1위 도시 당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기업을 유치해도 탈탄소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 경제 성장을 이루더라도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성장이어야 한다. 지역의 탄소다배출산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상과제이자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당진시는 기후위기대응 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위기대응 부서를 확대·강화하고 전 부서의 업무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2022년 7월 12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 송영주 · 황성렬

당진시 행정조직 개편 확정 지속가능담당관 폐지하고 '기후환경과'로

(생략) 당진시가 당진시의회에 제출한 당진시 행정조직 개편안을 두고 지난달 26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했다. (중략) 총무위원회에서는 기존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되,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에 △환경정책팀 △탄소중립팀 △기후환경팀을 두는 것으로 의결했다. (중략)

이틀 뒤 열린 본회의에서도 당진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또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중략) 의견이 분분하게 이어지면서 표결을 진행키로 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에 대해 조상연·김명진·윤명수 의원은 반대한 반면 나머지 11명의 의원은 찬성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최종 통과됐다. (이하 생략) [출처 : 당진시대 일부 발췌]

당진시, 2020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합계 전국 12위

업체별 배출량·이동량 현대제철 10위, 알테크노메탈 18위
유해성 높은 유독물질, 발암물질 업체 집중 관리해야

전국 사업장별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
동량을 집계한 결과 당진시는 2만 1777톤으로
시군구별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
났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정보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정
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는 전국 화학
물질 배출량·이동량 120만 4306톤의 1.81%인 2
만 1777톤을 기록했다.

당진시는 배출량 887톤, 자가매립량 5톤, 이
동량(폐수 또는 폐기물을 주소지가 다른 업체
에 위탁처리하기 위해 이동시킨 양) 2만885톤
으로 나타났다. 당진시는 주로 이동량이 많아
배출량은 전국 21위를 차지했으나 이동량을 더
한 결과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업체별 배출·이동량 합계 순위에서는 현대제
철이 1만2046톤으로 전국 10위, 부곡공단에 소
재한 알루미늄 합금 생산기업 (주)알테크노메탈
이 4892톤으로 전국 18위로 나타났다.

당진시의 업체별 순위를 보면 현대제철이 1
위, 알테크노메탈이 2위, 부곡공단에 소재한 태
진스틸산업이 3위, 희성피엠텍 4위, 정미면에
소재한 SIMPAC 당진공장이 5위를 기록했다.

유독물질 배출·이동량 업체별 순위를 보면 현

대제철이 1위, 태진스틸산업이 2위, 희성피엠
텍이 3위, 휴스틸이 4위, 삼우산세공장이 5위
순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 배출·이동량 업체별 순위를 보면 현
대제철이 1위, 인성 당진공장이 2위, 황금에스
티가 3위, 알테크노메탈 4위 순으로 나타났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화학
물질 전체 순위에서는 16위와 18위인 (주)인성
당진공장과 황금에스티가 발암물질 순위에서
는 2위와 3위로 나타났다”며 “화학물질도 물질
별로 유해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독물질, 발암
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 우선적이
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은 9만6712
톤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으며 경기, 경북,
전남에 이어 광역별 순위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업체별 배출·이동량 합계에서 상위 20위
이내에 충청도내 6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당진의 현대제철, 알테크노메
탈 외에도 서산의 LG화학대산공장이 7위, 한화
토탈이 19위, 예산의 삼지금속공업이 15위, 아
산의 경보제약이 20위를 기록했다.

[출처 : 당진신문]

2020년 당진시 업체별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상위 20개 업체)

(단위 : kg/년)

	업체명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합계
1	현대제철(주)당진일관제철소	40,015	4,748	12,001,181	12,045,944
2	(주)알테크노메탈	65,604	0	4,826,709	4,892,313
3	(주)태진스틸산업	1,091	0	768,539	769,630
4	희성피엠텍(주)	241	0	678,569	678,810
5	(주)SIMPAC 당진공장	809	0	589,674	590,483
6	현대그린파워	569,337	0	44	569,381
7	(주)휴스틸	85	0	390,442	390,527
8	환영철강공업(주)	146	0	387,346	387,492
9	(주)삼우산세공장	114	0	361,148	361,262
10	케이지동부제철(주)	834	0	309,935	310,769
11	서울경금속당진지점	6,500	0	200,002	206,502
12	한두철강(주)당진공장	0	0	91,377	91,377
13	(주)비츠로셀	12,396	0	56,110	68,506
14	에스엠인더스트리(주) 케이티세라믹사업부 당진지점	11,084	0	47,254	58,338
15	한국동서발전(주)당진발전본부	34,510	0	20,499	55,009
16	(주)인성 당진공장	22,679	0	27,033	49,712
17	주식회사동서기공당진지점	1,918	0	33,225	35,143
18	황금에스티	0	0	34,830	34,830
19	(주)인지디스플레이 당진1공장	80	0	34,409	34,489
20	(주)하이스틸	29,000	0	0	29,000

2020년 전국 업체별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상위 20개 업체)

(단위 : kg/년)

	업체명	배출량	자가매립량	이동량	합계
1	(주)포스코(포항제철소)	71,456	1,929,820	243,659,742	245,661,018
2	(주)포스코광양제철소	48,037	1,026,477	154,117,202	155,191,716
3	에스케이하이닉스주식회사	82,169	0	88,477,189	88,559,358
4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	349,729	0	70,833,303	71,183,032
5	주식회사 DB메탈 동해공장	11,412	0	41,333,362	41,344,774
6	삼성전자(주) 평택사업장	391,077	0	35,301,511	35,692,588
7	(주)LG화학대산공장	129,901	0	21,402,099	21,532,000
8	SK하이닉스(주)	52,761	0	14,204,219	14,256,980
9	SK하이닉스(주)	38,195	0	13,675,662	13,713,857
10	현대제철(주)당진일관제철소	40,015	4,748	12,001,181	12,045,944
11	피아이첨단소재(주)	30,543	0	11,386,141	11,416,684
12	(주)세아엠엔에스	2,082	0	9,744,456	9,746,538
13	삼성전자(주)기흥	143,943	0	8,960,317	9,104,260
14	(주)AVATEC	712	0	7,504,888	7,505,600
15	삼지금속공업(주)	327	0	6,836,228	6,836,555
16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45,196	0	5,964,548	6,009,744
17	(주)유한화학	20,190	0	5,432,142	5,452,332
18	(주)알테크노메탈	65,604	0	4,826,709	4,892,313
19	한화토탈(주)	60,140	0	4,813,252	4,873,392
20	(주)경보제약	14,249	0	4,811,795	4,826,044

소들섬 코앞까지 철탑... 주민 압박

우강면 부장리에 37번 철탑 세워져...철탑 공사 계속

주민들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들섬 코앞까지 철탑이 세워졌다. 한전은 소들섬을 사이에 두고 당진 쪽과 아산 쪽에 거대한 철탑을 세워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공동대표 김영란·유이계·이덕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우강면 부장리에 북당진-신탄정 345kV 송전선로 노선 중 37번 철탑이 세워졌다. 주민들이 소들섬 앞 소들공원에서 집회를 벌인지 사흘 만의 일이다.

부장리에 37번 철탑 세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송악읍 부곡리 북당진변전소에서 아산시 신탄정변전소까지 연결되는 북당진-신탄정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신당리에 위치한 33번 철탑은 이미 세워졌으

며, 삼교호 제방을 따라 인근 논에 34번, 35번, 36번 철탑을 세우기 위한 기반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장리 마지막 철탑인 37번이 건립됐다. (중략)

소들공원에서 집회 열고 호소

한편 지난 23일 소들섬이 바라다보이는 소들공원에서 집회가 열렸다. 우강면 주민들과 철탑반대대책위원회,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진시농민회 등 시민단체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마다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걷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캠페인 대신 집회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하 생략)

[출처 : 당진시대 일부 발췌]

7월 23일 소들섬 앞 소들공원에서 주민들이 한전의 철탑 공사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후정의버스 당진화력 찾아 정의로운 전환 요구



기후정의버스 참가자들이 당진화력 전력문화홍보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정의버스 참가자들이 퇴근하는 당진화력 노동자들을 향해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알리고 있다.

7월 6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바라는 전국의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당진화력발전소를 방문하는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버스'가 진행됐습니다.

당진을 찾은 기후정의버스에는 대학생기후행동 활동가, 흙리스 활동가, 발전소 노동자 등 에너지전환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후정의 버스는 오전에 당진화력발전소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워크숍, 발전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근 선전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후정의버스 당진화력 방문에는 손창원 상임의장, 김정진 사무국장, 조순형 충남환경연합 기후에너지특위 위원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글 : 사무국]

"기후위기 대응 시간 8년 남아... 정의로운 전환 이뤄야"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보령행동 21일 출범



이날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보령행동 창립대회에서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7월 21일 충남 보령시 농민회관에서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보령행동(아래 기후위기 보령행동)의 창립대회가 열렸다.

기후위기 보령행동은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지표온도는 1.8도씨 상승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온도가 약 1도 상승할 때 한반도는 거의 2배 가까이 온도가 올랐다"며 "지난 2018년 폭염과 2020년 54일간 쉬지 않고 비가 내리는 이상기온을 경험했다. 지구온도 1.5도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이제 8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중략)

이들은 창립선언을 통해 정부에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할 것 ▲기업 중심의 그린뉴딜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 ▲기후위기로부터

농·수산업을 보호할 것 ▲기후위기 관련 정책에 시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것 등을 촉구했다.

기후위기 보령행동은 이날 이선숙 대표, 홍운길 부대표를 당연직 대표로 선출했다.

이선숙 기후위기 보령행동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매달 준비위원들을 만나 창립 준비를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다 보니 그동안 투쟁의 시간이 많았다. 우리의 삶뿐 만 아니라 지구의 동식물을 살려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최근 고온으로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물질이 나왔는데 문제없다고요?

대구 3개 정수장 수돗물서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환경부·대구시 “부경대 검사 결과 신뢰도 낮아”



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낙동강 녹조물을 들고 흥준표 대구시장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환경부와 대구시가 대구 수돗물에서 나온 녹조 독성물질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문화방송은 대구 매곡·문산·고산정수장의 원수와 정수를 마치고 가정으로 공급되기 직전의 물을 채취해 이승준 부경대 교수(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 분석을 의뢰했다. 연구팀은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ELISA)을 사용해 200여종의 마이크로시스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매곡정수장에서 0.281 $\mu\text{g}/\ell$ (ppb), 문산정수장에서 0.268 $\mu\text{g}/\ell$, 고산정수장에서 0.226 $\mu\text{g}/\ell$ 검출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류가 생성하는 독성물질로, 인체에 흡수되면 간·폐·혈청·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정자·난자를 감소·변형시키는 생식독성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권고기준에서 마이크로시스틴 허용치는 1 μ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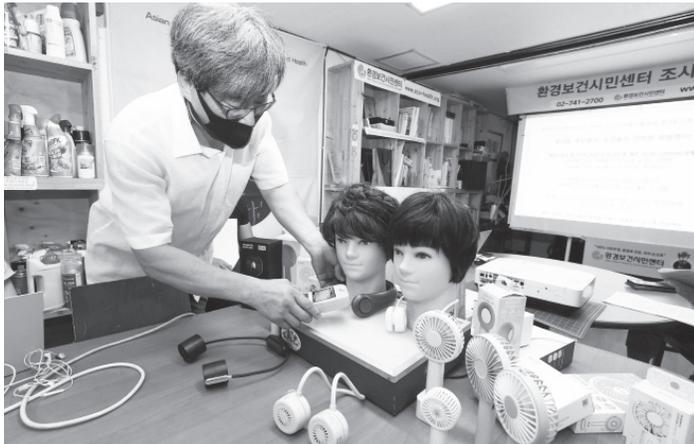
/ ℓ 이며,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 허용치는 유아 0.3 $\mu\text{g}/\ell$, 성인 1.6 $\mu\text{g}/\ell$ 이다.

하지만 환경부와 대구시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설명자료를 내어 부경대 연구팀의 분석 방법에 대해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류독소 분석법 중 하나지만 0.3 $\mu\text{g}/\ell$ 미만의 값은 신뢰도가 낮아 검출량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정확도가 낮은 분석법으로 조류독소의 유무를 신속히 판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른 마이크로시스틴 4종을 정밀 분석(액체크로마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법)하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오존·활성탄)로 조류 독성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출처 : 한겨레신문 일부 발췌]

환경단체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방출”... 25cm 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목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에서 발암 위험기준을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손선풍기를 이용할 때는 25cm 이상 거리를 뒀야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선풍기 4종과 손선풍기 6종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4종의 목선풍기에서는 평균 188.77mG(밀리가우스·전자파 세기의 단위), 최소 30.38mG~최대 421.20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그룹 2B에 해당하는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면서 4mG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중략)

목선풍기에서 측정된 평균 전자파 수치는 주

변에서 전자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전자파 수치를 의미하는 배경값 0.3mG의 62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센터는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거리별로 측정한 결과 25c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경우 전자파 수치가 4mG 아래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거리를 두면 그만큼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 형태상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한 목선풍기의 경우 손선풍기보다 제품에 따라 수십배에서 수백배 세기의 전자파에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목선풍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전자파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보건 분야의 문제로 다루기 위해 주무부처를 환경부로 바꿀 것과 4mG를 법적 기준치로 삼을 것 등을 주장했다. 실제 스위스나 이스라엘 등 국가들은 환경청 등 환경규제기관이 전자파의 장기노출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또 장기간 전자파 노출 시 성인보다 백혈병 발병 등의 위험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들은 휴대용 목선풍기·손선풍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하 생략)

[출처:경향신문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7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15,765,439	인건비	급여	5,637,500
회 비	개인회비	5,990,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70,000		사회보험료	463,410
	계	6,060,000		계	6,466,7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961,360	경상비	복리후생비	
	법인후원			세금과공과금	74,790
	계	961,360		소모품비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지급수수료	487,210
	계			기타운영비	193,2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계	755,200
	계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163,900
보조금	기타사업			생태보전사업	
	계			생화환경사업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조직 회원사업	1,031,460
	계			모금사업	97,000
기타수입	기타수입	1,418		연대사업	461,600
	계	1,418		기타사업	
전입금	전입금			계	1,753,960
	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차입금	차입금			계	
	계		이월액	이월액	13,812,327
		계		13,812,327	
월수입 총계		7,022,778	월지출 총계		8,975,890
수입 합계		22,788,217	지출 합계		22,788,217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신고센터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전국 환경운동연합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초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어 제대로 된 단속은커녕, 오히려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 컵을 제공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까지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 캠페인으로 취합한 데이터들은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에 맞추어 전국 환경연합의 목소리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 환경연합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매장내 1회용컵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매장내 1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과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전국 캠페인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추가로, 조사 결과는 뉴스랭권의 [전국 플라스틱 카페 지도]에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참여 지역 신청 링크 : <https://forms.gle/djcrML1TaUsQv2hy7>

* 신청 기간 : ~ 8월 11일 (수)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실 지역 환경연합에서는 첨부 드린 웹자보 및 이미지를 아래 시민참여 링크와 함께 홈페이지, SNS 등에 게시해주시면 됩니다.

<매장내 1회용컵 제보센터> 시민 제보 링크 : <https://me2.kr/rmu69>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환경연합 박정음 활동가 (02-735-7088)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백나운 활동가 (02-735-7069 (내선 304), 010-4380-2124)

***당진에서도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 제보를 회원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혹시,

매장 안에서 먹고가는데도 1회용컵을 받아
당황스러웠던 기억,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셨겠죠?

환경운동연합은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받았던 순간'을
모으려고 합니다. (사례 기준일: 4월 1일 이후)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기간

2022년 8월 4일(목) ~ 9월 4일(일)

제보대상

전국 모든 카페

제보방법

링크(QR 코드) 입력▶



※사진도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보해주신 소중한 순간들은 모두 모아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캠페인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석탄씨를 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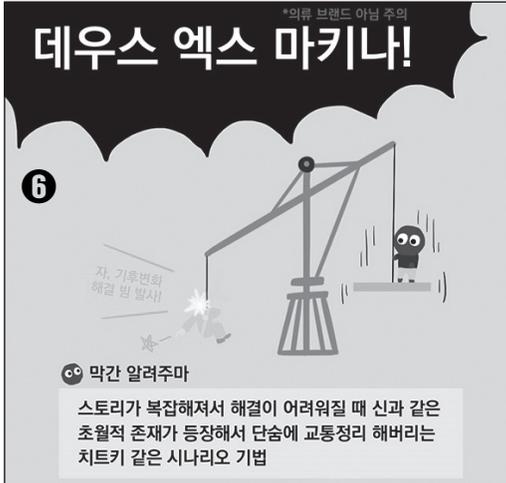
23화. 위기의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씨를 구해줘>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및 에너지 인식 대전환을 위해 제작된 환경운동연합 브랜드 웹툰입니다.

석탄씨를 구해줘

23화. 위기의 석탄씨를 구해줘



*석탄씨는 누구?
 이름 : William,F.coal(김석탄)
 나이 : 형성 후 1억 년, 채광 후 3년
 고향 : 호주
 꿈 : 매장
 직업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이 웹툰은 2020년 12월 4일 발행되었습니다.



7월 운영위원회

7월 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7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설립설명회

7월 7일 당진시종합복지타운에서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출자조합원 모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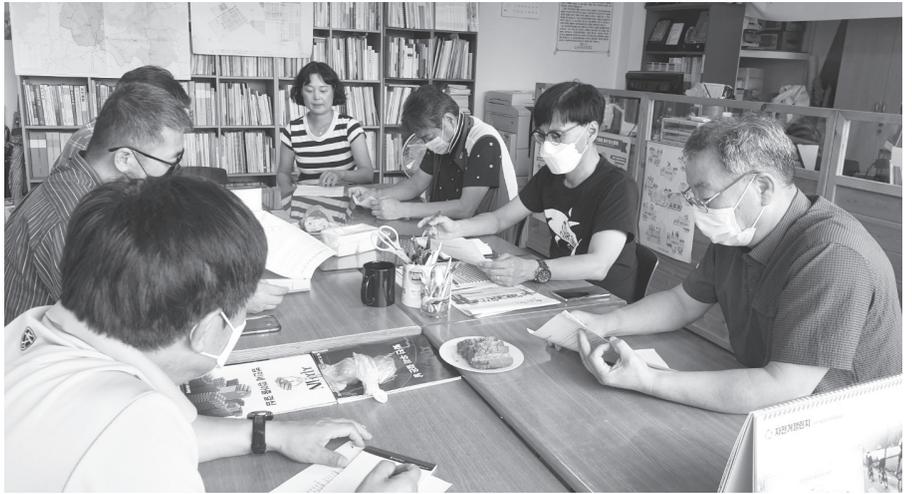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

7월 13일 당진지속협 사무실에서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준비위원회 1차 회의

7월 1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날짜와 장소 프로그램을 논의하였습니다.



충남정의로운전환포럼 회의

7월 20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정의로운전환 포럼 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들섬 철탑공사 강행 한전 규탄 쫓기대회

7월 23일 소들섬 철탑공사 강행 규탄 쫓기대회에 참여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8/03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인사위 - 내포혁신플랫폼
- ❖ 8/05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 에코생협 당진점
- ❖ 8/08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위 회의 - 온라인
기후위기 충남행동 전체회의 - 온라인
- ❖ 8/09 SPC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당진시민행동 기자회견 - 당진시
에코생협 운영위원회 - 에코생협 당진점
8월 정기 운영위 및 고문·자문단 간담회 - 해송
- ❖ 8/10 CPTPP 가입저지 당진운동본부 준비모임 - 당진시농민회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2차 워크숍 - 당진시청
민간환경감시센터 채용 인사위 면접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기후활동가 캠페인 전략 연수 - 서울혁신센터
- ❖ 8/12 버스공영제 추진 관련 당진시장 면담 - 당진시청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정의로운 전환' 토론 - 보령머드테마파크
- ❖ 8/17 당진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 - 당진지속협
석탄을 넘어서 석탄발전 상한제 세미나 - 온라인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 - 충남노동권익센터
- ❖ 8/19 당진시에너지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8/22 에너지의날 기념 충남 동시다발 기후행동 - 구터미널 로터리
- ❖ 8/23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 미정
- ❖ 8/24 환경연합 신입활동가 현장 연수 - 당진화력 주변
당진에너지전환정책포럼 전체회의 - 당진공익활동지원센터
- ❖ 8/25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8/27 환경운동연합 임시 전국대표자회의 - 대전NGO센터
- ❖ 8/3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후원행사 기획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8/30(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강은식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병호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용열 김용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근 김현기 김현림 김희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흙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진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대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경라 유경자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유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순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증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중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본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환 정중섭
 정치웅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희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자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허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에너지의 날 맞이 당진기후행동
'석탄 대신 바람과 햇빛으로'

8월 22일은 제19회 에너지의 날입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함께 충남 동시다발 기후행동의 일환으로 '석탄 대신 바람과 햇빛으로'라는 이름의 기후행동을 진행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압도적 1위 지역 당진이 앞장서 석탄화력발전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8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구터미널 로터리

에너지의 날 다함께 참여해요

◇ 에어컨 온도 2°C 올리기 ◇

8월 22일(월) 오후 2시 ~ 3시

◇ 불을 끄고 별을 쬐다 (5분 불끄기) ◇

8월 22일(월) 저녁9시부터 5분간

상가임대

- ※ 대지 300평, 단층 건물 60평
- ※ 식당을 제외한 사무실 및 모든 업종 가능
- ※ 주소 : 충남 당진 석문면 대호만로 1508
- ※ 입지조건 : 석문 국가 산업단지 옆
(615 지방도로 인접)
- ※ 이 병 천 회원 : 010-3301-1192

**에코두레생협
 당진점**

건강한 먹을거리! 생명의 밥상

다양한 생활재 할인 행사
 당진시 무수동 2길 20 벽우빌딩 1층
 041-355-7161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